

2025년도 우정사업본부 업무계획

□ 디지털혁신 및 공적역할 강화

- (AI + 우정사업) 투자기업 채권 신용분석*('25.上), 우편물량 예측('25.下), 보험사기 방지(~'26) 업무 등에 AI를 본격 접목하는 등 일상화 추구
* 뉴스, SNS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기업별 크레딧 활용
- (농어촌 디지털 교육)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키오스크, 모바일 활용 등 디지털 금융교육('25.上)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
* 전담강사(7명)가 순회교육 실시(농어촌우체국 직원은 내방고객 대상 교육)
- (생활 속 지킴이) 커피캡슐('24.11월), 폐의약품* 회수 등 물류망을 활용하는 수익형 공익사업을 전국적 확대 실시 * 48개 지자체 협약, 52천개 회수

□ 우정사업 서비스 제고

- (접수채널 다양화) 집배역량을 활용한 픽업·반품소포 확대, 가정 등에서 모바일앱으로 접수 결제하고 우체통으로도 투함 가능한 서비스* 제공('25)
* 폐의약품 등 + 소형소포 등을 투함할 수 있는 Eco우체통 개발·보급('25년~ / 1,000개)
- (수익성 개선)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포 물류체계 개편(안)을 마련하고 적자 규모와 물가시책을 고려한 합리적 요금정책* 추진('25.上)
* 기본요금('24.9) : 일본 771원, 미국 963원, 프랑스 2,174원, 영국 2,187원 vs. 한국 430원
- (국민금융 플랫폼) 취약지역주민이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이 없도록 창구망 개방 확대*, 국민 노후재산 형성을 돕는 신규 연금상품** 개발
* ('23~'25) 7개 시중은행 모두 참여 / ** 자금운용성과 연계 보너스 지급 연금

□ 안전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

- (배달환경 개선) 집배원 견배부담 해소를 위해 노사 공동 개선안 마련, 친환경 자동차 의무 도입을 반영하여 전기차량(이륜차·경형밴) 보급 확대
- (상생의 노사관계)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안정적 노사관계를 운영하고, 직원 심리보호(악성민원 대응), 동기부여 등 공감경영 프로그램 개발